

## 김민준 "처남 지드래곤이 자 사진 올려...공개 안 하려고 했다"

등록 2025.11.04 09:47:31



[서울=뉴시스] 3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'절친 토크멘터리-4인용 식탁'에서는 배우 박중훈이 전 농구선수 허재, 배우 김민준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 (사진=채널A 제공) 2025.11.03. photo@newsis.com

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강주희 기자 = 배우 김민준이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.

3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'절친 토크멘터리-4인용 식탁'에서는 박중훈이 전 농구선수 허재, 배우 김민준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

이날 박경림은 김민준에게 "지드래곤이 조카는 너무 예뻐하더라. SNS(소셜미디어)에 가끔 올리는 거 보면"이라고 물었다.

김민준은 "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'아이가 커서 분별력이 있을 때 얼굴을 알릴지 말지 결정하게 해주자. 그게 우리 역할인 것 같다'고 했다. 그래서 모두 만장일치를 봤는데, 갑자기 처남이 올리기 시작했다"고 말했다.

이어 "그래서 제가 극렬하게 저항했다. 안 올리기로 하지 않았냐고 묻자, 처남이 '저는 못 들었다'고 하더라"고 했다.

이에 박경림은 "아버지가 배우, 어머니가 패션 쪽, 외삼촌이 세계적인 가수인데 아들은 어느 쪽이냐"며 궁금해했다.

김민준은 "개인적으로 삼촌 닮았으면 좋겠다"며 "장모님이 어떻게 보면 스타 메이커다. 지용이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으니 까 눈이 정확할 것 같더라. 그래서 아들이 끼가 있는 것 같아 장모님께 여쭙보니, 지드래곤이 훨씬 끼가 많았다고 하시더라"고 답했다.

한편 김민준은 지난 2019년 지드래곤의 누나 권다미와 결혼했으며 2022년 아들을 품에 안았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zooey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